

혜공왕[惠恭王]

신라 중대의 종말을 고하다

758년(경덕왕 17) ~ 780년(선덕왕 1)



성덕대왕신종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혜공왕은 신라 제36대 왕이다. 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해 어머니인 만월태후(滿月太后)가 오랜 시간을 섭정했다. 재위기간 중에는 각종 천재지변과 귀족들의 반란과 권력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귀족들의 반란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혜공왕도 시해되고 말았다. 혜공왕의 죽음으로 신라의 중대가 끝나고, 이후 즉위한 선덕왕에 의해 신라 하대가 시작되었다.

2 혜공왕의 가계와 즉위과정

혜공왕의 성은 김(金), 이름은 건운(乾運)이다. 아버지는 제35대 경덕왕(景德王)이고, 어머니는 서불한(舒弗邯) 김의충(金義忠)의 딸인 만월부인(滿月夫人)이다. 첫째 왕비 신보왕후(新寶王后)는 이찬(伊飡) 유성(維誠)의 딸이고, 둘째 왕비는 이찬 김장(金璋)의 딸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각간(角干) 위정(魏正)의 딸 신파부인(神巴夫人)과, 각간 김장(金將)의 딸 창창부인(昌昌夫人)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식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재위기간은 765년부터 780년까지이다.

혜공왕이 태어난 날은 758년(경덕왕 17) 7월 23일로, 삼국시대의 왕 중에서 출생 연월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드문 경우이다. 『삼국유사』에는 혜공왕의 출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경덕왕은 첫 번째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왕비를 폐하고, 만월부인을 후비로 맞았다. 오랫동안 아들을 원하던 경덕왕은 어느 날 표훈(表訓) 대덕(大德)을 불러 상제(上帝)에게 아들을 얻도록 청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표훈은 상제를 만난 후 딸은 가능하나 아들은 안 된다는 상제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경덕왕은 딸을 아들로 바꿔줄 것을 청하였다. 상제는 딸을 아들로 바꿀 수는 있으나, 그러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덕왕은 아들을 얻어 대를 잇기를 원하였다. 이에 만월부인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혜공왕이다. [관련사료](#)

이처럼 혜공왕의 출생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딸을 아들로 바꾼 결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혜공왕이 태어나던 날에는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크게 치고, 절 16 곳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출생 상의 문제 때문에 혜공왕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이 하는 장난을 하고,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등 왕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